

2015 Manhae Festival

萬海祝典 “독립·평화 노래한 만해정신 계승”

만해대상 12일 시상식... ‘설악·금강’ 주제로 열려

광복70주년을 맞아 일제침략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짚는 만해축전 ‘제19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림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통일을 의미하는 ‘설악과 금강’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사부대중 1000명이 동참해 평화와 공존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특히 올해 만해대상은 세계평화와 인류애를 실현하는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 교수를 비롯해 실천부문에 천노엘 신부, 청전스님, 문예대상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황병기 가야금 명인, 정현중 시인에게 각각 상이 수여됐다.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해 온 더든 교수는 “만해스님의 시를 통해 그의 정의롭고 순수한 휴머니즘을 만날 수 있었다. 만해스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천노엘 신부는 “만해스님의 삶은 사회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받고자 투쟁하는 장애인들과 닮아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히말리야 오

지를 다니며 빈민에게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전하고 있는 청전 스님은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위해 베푸는 행이 수행임을 믿고 작은 실천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예대상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저술과 강연활동을 이어온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신 교수는 1968년 통학당 사건으로 구속돼 20년간 수감생활을 감내했으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을 펴

더든 교수 등 6명 부문별 수상

“만해 스님, 순수한 휴머니스트”

백일장, 학술세미나 등 행사 다채

냈다. 또 가야금 명인 황병기 명예교수는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 온 공로와 정현중 시인은 등단 50년 동안 수많은 문학작품을 통해 문단을 이끌어온 점에서 문예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주최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만해대상을 수상한 많은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즉, 만해대상은 노벨상 후보를 뽑는 상”이라고 인사말을 건네며 “식민지의 어둠과 정면으로 맞선 만해 스님은 광범한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불꽃 속



만해축전 ‘제19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림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만해 흉상 앞에서 있는 만해 대상 수상자들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알렉시스 더든 교수, 무지개공동회 대표 천노엘 신부, 청전스님, 신영복 교수, 정현중 시인, 황병기 교수

에 연꽃이었다. 역사왜곡에 항의성명을 낸 더든 교수와 히말리야 오지마을에서 봉사를 해온 청전 스님 등 수상자들에게 상을 건넬 수 있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포교위원장 지원 스님은 “만해스님은 수행자이자 위대한 시인이었고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였다”며 “제국주의에 은뎠던 저항했지만 만해의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 주의였다. 인권과 평화를 지키고 세상에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현시대의 선각자들에게 이 상을 드려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만해축전은 8월 11일부터 14

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과 인제시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축전은 동국대가 행사 주최를 맡아 만해대상 시상식, 전국교교생 백일장, 학술·문학심포지엄 등을 진행했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청년만해학교, 어린이미술캠프 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순선 만해축전 수석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만해축전 시기를 맞춰 홍성군 서울성북구 등 만해 스님과 인연이 있는 단체가 함께 순례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만해탄생지인 홍성군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 자신들의 침략사 반성해야”

인터뷰- 만해대상 평화부문 알렉시스 더든 교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발전도 가능합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일본은 균형을 잃은 역사인식에 빠져 있어,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성하는 등의 움직임이 한일, 그리고 동북아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15 만해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46·사진)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8월 12일 시상식이 열린 인제하늘내림센터에서 “일본이 식민지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든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연구자로서 2015년 2월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든 교수는 일본이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를 언급했다. 일본은 당시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이어 1998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

더든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의 발언과 행동은 현재 일본 국민 인식보다도 훨씬 균형을 잃은 상태”라며 “위안부 문제 등 책임에 대한 언급없이



평화헌법 폐기를 시사하는 것은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더든 교수는 이날 수상소감으로는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을 예로 한국인들의 평화주의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더든 교수의 경우 대학원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영어로 번역된 만해 스님의 시집을 보고 만해대상에 전착했다.

“만해 시집을 보았을 때 태어나 처음 물을 마셨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그녀는 “마시는 순간에 그의 말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수년째 자신의 강의시간에 만해 한영운의 시를 학생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있는 그녀는 만해 스님의 시에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의 특이점을 찾았다.

더든 교수는 “만해 스님은 순수한 노래로 평화와 독립을 노래했다”며 “이를 통해 일본 식민 통치가 어떤 의미였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구인사 국제선원

9월 12일 낙성

선원 등 5개동 구성

충북 단양 영춘면에 건립불사중인 구인사 국제선원이 2013년 4월 착공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낙성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총광 스님)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구인사 국제선원(선원장 덕수 스님)서 국제선원 낙성대법회를 봉행한다.

구인사 국제선원은 종교와 종단, 지역과 계층, 국가와 인종 등을 초월해 누구나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한국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건립된 복합 수행문화공간이다. 2013년 4월 20일 첫 삼을 뒀으며, 2014년 8월 28일 대들보를 올렸다. 올 6월 23일에는 국제선원장에 덕수 스님을 임명해 마무리 불사중이다.

한편 구인사 국제선원 건립에는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 국제선원은 7,825㎡(2,370평) 부지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한마음문(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주일 기자

일제 강점기 추가 경판 어떻게 해야 하나

문화재청, 팔만대장경 경판 추가 발견... 94판 늘어나

국보 제32호 함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추가경판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시대 제작된 경판을 비롯한 시대별 경판의 가치에 대한 불교계와 학계 관점이 다른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8월 11일 팔만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알려진 8만 1258판보다 94판 늘어난 8만 1352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판수는 문화재청이 2000년부터 진행한 ‘팔만대장경 디지털화’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다. 늘어난 94판 중 36판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경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장경판의 경판 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으나 국보로 지정된 1962년 이후에도 정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가 그대로 인정돼 왔다.

윤순호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은 “대장경판은 워낙 많고 경판이 한두 점씩 발견되기도 해 숫자가 틀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경판을 하나씩 빼서 촬영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량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늘어난 경판을 두고 학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장경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모두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면밀한 조사 후 시대별 구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36판은 일제 제작 확인돼

최종 8만 1352판으로 집계

국보지정 추진에 학계 지적

전수영역을 맡았던 최영호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일제강점기 제작된 36판의 경우 훼손된 대장경판을 보완하고자 제작한 문화유산”이라며 “시대별 대장경의 문화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보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일본시

기 경판의 경우 근대문화재 지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판 전문가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대장경은 시대마다 보수과정에서 보판이 이뤄졌으며 이에 이중판 등이 존재한다”며 “그렇기에 본의미의 대장경은 1248년 고려에서 간행과정 끝에 만든 대장목록에 의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일본의 경우 대장경을 ‘일체경’이라 하여 총괄해 부르고, 시대별 구분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위원 홍선 스님도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이후 문화재 지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0월 경 학술대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판의 국보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회장 선출 총회, 10월 중순 열린다

11월 18차 운영위서... 9월 10일 최종 결정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의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10월 중순 경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9월 10일 임원진 회의로 열고 확정한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11일 서울 강남구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에서 제18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11대 회장선거 관리 및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뒤에는 운영위원

장 계환 스님과 부위원장 모주 스님 등이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9월 10일 임원진회의를 열고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날짜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총회는 대략 10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입후보자가 한 명이면 추대, 두 명 이상이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배구대회

4년 만에 열린다

8월 30일 단양공설운동장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유훈에 따라 1974년부터 펼쳐온 화합의 장 ‘제38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및 천태화합한마당’이 8월 30일 단

양공설운동장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11년부터 3년 마다 개최해 오다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연기돼 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현재 30여 개 말사서 참가신청을 마쳤을 정도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대회 구성도 이전보다 짜임새 있어졌다. 우선 종목은 배구·족구·단체줄넘기·승부차기·피구·8인 9각 달리기·명랑운동회 등 7가지이다.

김주일 기자 jimji4217@hyunbul.com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고운사 특강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承之而生
 不知何以言之 強號之謂大乘

있다(有)는 것에 이끌어도 한결같은(一如) 그 쓰임이 공(空)과 같고, 없다(無)는 것을 얻어도 만물(萬物)이 그것을 타고 나오니(生), 알지 못함이라. 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군이 대승(大乘)이라 이름이니라.

大乘起信論 海東沙門 元曉 疏 본문 중에서




저희 고운사에서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이수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833-2324

- 일 시 : 2015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화엄문화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 정(W100,000)
- 작년 동안거특강에 이어 강의가 진행되오니 대승기신론 책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www.gosusa.net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